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탄생 200주년 희년

## “춘천교구 청년 순례자” 순례지 안내

### ■ 순례지\_춘천교구 내 성해(聖骸)가 안치된 본당(14곳)

: 운교동, 스무썽, 현리, 포천, 김화, 갈말, 임당동, 노암동, 주문진, 솔울, 묵호, 동명동, 거진, 양양

※ 현리, 포천, 김화, 임당동, 양양 성당은 ‘성 김대건·최양업 사제 탄생 200주년 희년 전대사 수여 방문성지 성당’입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탄생 200주년 희년 전대사 조건 파일 참고 바랍니다.)

### ■ 순례지 정보

#### 1.운교동 성당

순례도장 위치	야외 성모상 좌측
성해(聖骸) 위치	제대 왼편
성전 개폐 시간	항시 개방(코로나가 심하지 않을 경우)
미사 시간	- 평일(월, 수, 금, 토) 10:00 - 평일(화, 목) 19:00 - 토요일 저녁 주일 19:00 - 주일 07:00 / 10:30(교중) / 19:00(청년, 학생)
주소	춘천시 동부시장길 13번길 9
사무실 연락처	033)252-3517
약사	운교동 성당은 1966년 8월 11일에 설립되었고 주보는 ‘한국 순교 성인’이다. 1964년 한국 천주교회가 병인박해 순교자들의 시복을 앞두고 각 교구마다 순교 복자 기념성당을 건립하기로 결정할 때 춘천교구도 1964년 12월 현재의 운교동 성당 부지 1,590여 평을 매입하여 공사를 시작해 병인박해 100주년이 되는 1966년에 ‘한국 순교 성인’이 주보인 “한국 순교 복자 기념성당”이 설립되었다. 건축물로는 대성전, 사제관, 수녀원 외에 부속건물로 예비자 교리실과 창고로 구성되었고 <del>채의방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신부의 유해일부가 모셔져 있다.</del> (현재는 대성전 제대 왼편) 설립 당시 운교동 성당의 관할 구역은 운교동 4구역, 교동 4구역, 조양동 1구역, 효자동 3구역, 옥천동 1구역, 후평동 4구역, 만천리 1구역, 도화리 등 총 19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1965년 9월 6일 죽림동과 소양로 성당에서 전출된 300여 세대 750여명의 신자로 출발하였다. 본당설립을 하며 상거리 공소가 죽림동 성당에서 운교동 성당 관할로 이관되어 왔으나 사제들이 1년에 한 두번 공소를 방문하여 미사를 집전할 정도로 교통편이 불편하여 공소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되었다.

1970년대 초 한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 온힘을 기울이던 시기였으나 국민의 경제상황은 좀처럼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웠는데 이 때 교회 안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이라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던 실정을 잘 알고 있던 주임신부가 1973년 1월 14일 운교 신용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1991년 운교 신협은 전국 최우수조합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나 1997년 10월 국가가 IMF를 당하면서 시작된 금융권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1999년 5월 문을 닫게 되었고 조합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신자들이 아쉬워하였다.

운교동 성당은 골롬반 외방 선교회 신부들이 활동했던 시기인 1978년까지 ‘행복한 가정 운동’을 펼쳐나가며 재정자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준비해 나갔고 1979년 한국인 사제가 처음으로 부임한 이후부터는 재정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노력하여 본당이 대외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립의 기반을 다지게 되어 성당의 보수와 유지 등에도 교구청의 지원이 아닌 신자들이 성금을 모아 공사를 하였다. 또한 취학 전 아동들의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하여 유치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교구의 승인을 받아 1981년 3월 ‘대건유치원’을 개원하였다. 대건 유치원의 원명은 1846년 순교한 한국 최초의 한국인 사제인 김대건 신부를 현양하기 위해 ‘대건’이라 명명하고 “인지교육과 정서교육 그리고 기본적인 신앙교육”을 목적으로 지역내 아동들의 올바른 인성과 신앙교육을 담당하며 춘천에서 우수한 유치원이라는 찬사를 들으며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나 2009년 2월 폐원하였다.

## 2.스무숲 성당

순례도장 위치	성당 로비 주보대 위
성해(聖骸) 위치	제대 받침대 가운데
성전 개폐 시간	09:00 ~ 17:00 <i>*코로나19로 정해진 시간에도 잠겨있는 경우가 많으니 방문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i>
미사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일(월) 06:30</li> <li>- 평일(화, 목) 19:00</li> <li>- 평일(수, 금, 토) 10:00</li> <li>- 토요일 저녁 주일 19:00</li> <li>- 주일 07:00 / 10:30(교중) / 19:00(청년, 학생)</li> </ul>
주소	춘천시 안마산로 290-7
사무실 연락처	033)263-9750
약사	<p>스무숲 성당은 2002년 9월 14일 효자동 본당에서 분리, 설립되었고 주보성인은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이다. 스무숲’성당이란 명칭은 이곳이 예전에는 스무나무(줄기에 지독한 가시가 있어 한번 찔리면 스무날을 앓아야 낫는다는 나무)가 숲을 이룰 정도로 많아 ‘스무숲’이라 일컬어 왔던 곳에서 유래 되었다. 1994년 춘천교구장으로 착좌한 장익(張益, 십자가의 요한)주교는 작은 교회인 소공동체를 구성하여 활성화하는 것을 사목방침으로 삼았다. 이 시기 춘천 남부지역인 퇴계동과 석사동은 새롭게 택지가 조성되어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서 인구밀집이 예상되었고 효자동 성당에는 스무숲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금호와 한주 아파트의 신자가 많아져 분가가 불가피함에 따라 2002년 9월 14일 414세대 1174명의 신자를 분리시키며 스무숲 성당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관할 공소로는 실레마을 공소가 있고 2010년 춘천교구장에서 은퇴하신 장익 주교가 거주하면서 미사는 봉헌되고 있으나 공소 신자들 대부분은 스무숲 성당 미사에 참여하고 있다.</p> <p>2002년 9월 15일 스무숲 성당 설립미사는 장익 주교의 주례로 지역 사제들과 신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막을 치고 노천미사로 봉헌되었고 금호타운상가의 지하를 성당으로 조성하여 9월 21일부터 본당미사를 봉헌하였다. 성전 건립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본당의 제 모습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목방향 아래 소공동체 모임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실천한 결과 주일미사와 평일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수가 꾸준히 증가해 나갔다.</p> <p>신자수의 증가로 지하성당은 비좁았고 언제 비워주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매입해놓은 부지에 먼저 교육관을 짓기로 결정한 후 2003년 12월 13일 교육관을 완공하여 축복식을 하고 교육관 1층을 성당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성전 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을 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성전의 전체적인 형상은 돔형으로 영원과 우주를 상징하고 주보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이</p>

자연과 함께하는 모습을 살려 형상화하기도 했으며 모든 신자들이 전례의 중심 공간인 제대를 같은 거리에서 바라보며 전례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건축을 해나가며 성모승천 대축일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라는 성구를 대들보에 새겨 상량식을 하고 **제대 중앙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유해 일부를 모시면서 건축을 마무리했다.** 성당 외부 성모상 앞쪽으로 다미아노의 십자가를 보도 블록으로 형상화하여 깔고 자연과 어우러진 마당을 가운데 두면서 기존의 교육관과 사제관을 갖춘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아름다운 새 성전을 완공하여 2007년 3월 1일 장익 주교의 주례로 헌당식을 거행하였다.

스무췌 성당은 주보성인인 성 프란치스코를 닮아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고 보전하며 가난의 영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만들기를 목표로 관할 구역의 사회복지 시설에 복음과 사랑과 자비를 나누며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 3.현리 성당

<b>순례도장 위치</b>	성전 입구 우측
<b>성해(聖骸) 위치</b>	성전 제대 가운데 아래
<b>성전 개폐 시간</b>	09:00 ~ 저녁미사까지 개방
<b>미사 시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일(월) 06:00(하절기) / 06:30(동절기)</li> <li>- 평일(화, 목, 금) 19:30</li> <li>- 평일(수, 토) 10:00(토요일은 첫주에만)</li> <li>- 토요일 저녁 주일 16:00(학생) / 19:30</li> <li>- 주일 06:00(하절기) / 06:30(동절기) / 10:30(교중) / 16:00 / 19:30</li> </ul>
<b>주소</b>	경기도 가평군 하면 연인산로 5-35
<b>사무실 연락처</b>	031)585-3100
<b>약사</b>	<p>현리 성당은 1983년 9월 1일 청평 본당에서 분가되어 준본당으로 승격된 후 1988년 8월 17일 교구에서 사제를 파견하면서 주임신부가 상주하게 되었고 1994년 4월 19일(교구 교령에 의함) 본당으로 승격, 설립되었으며 주보성인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이다. 현리 지역은 1920년 대원군의 박해시대 이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으로 일제강점기 동안에는 서울교구 의정부 본당 관할이었다. 1950년 한국 전쟁으로 미사를 드리지 못하다가 수복 이후에 의정부본당 김패덕 신부가 다시 미사를 집전하게 되었고 전쟁이후 구호물을 받기위해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 수가 증가하면서 공소로서의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고 의정부 본당 관할 현리공소였다가 1956년에 청평본당 현리공소로 관할이 변경되었다. 판공 때는 사제가 공소를 방문하여 성사를 주었고 대축일에는 신자들이 청평성당까지 나가 미사에 참여하였다.</p> <p>1966년에는 인근 맹호 군중 성당에 초대 군중신부가 부임하여 주일미사 및 매일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되면서 공소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1971년에 현리공소의 관할권이 서울교구에서 춘천교구 청평본당으로 이관되었다. 관할권이 변경되고 인근 부대의 군중신부가 청평 본당의 신부와 협의하여 군인과 민간 신자의 사목을 더욱 활성화시키면서 신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신자 수의 증가로 공소 건물이 협소해지자 군중신부는 춘천교구장 박토마스 주교에게 의뢰하여 현리 240번지에 대지를 마련하여 성당과 사제관 신축 기공식을 하였고 춘천교구와 신자들과 군중후원회와 장병들의 노고로 성당 건축을 마무리하고 1979년 7월 5일 박 토마스 주교의 주례로 축복식을 거행했다. 이후에도 군중신부와 교구 사제가 노력하여 신자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자 본당으로 승격된 것이다. 현리 성당은 신자들의 계속된 증가로 성당이 협소해지면 내부수리를 하고 교육관도 2층으로 증축하는 등 신자들의 노력과 봉사를 통해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p>

#### 4.포천 성당

순례도장 위치	성당 로비 주보대 위
성해(聖骸) 위치	성전 제대 왼편
성전 개폐 시간	05:30 ~ 20:00(저녁미사 O) / 19:00(저녁미사 X)
미사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일(월) 06:00</li> <li>- 평일(화, 목) 19:00</li> <li>- 평일(수, 금, 토) 10:00</li> <li>- 토요일 저녁 주일 16:00(어린이) / 19:00</li> <li>- 주일 07:00 / 10:00(신평공소) / 11:00(교중) / 19:00(청년, 학생)</li> <li>- 성지미사 마지막 토요일 11:00</li> </ul>
주소	경기도 포천시 왕방로 191
사무실 연락처	031)534-0057
약사	<p>포천성당은 서울교구 의정부본당 관할 공소였다가 1956년 2월 21일 본당으로 승격되었으며 주보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이다. 포천 지방은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한 홍교만과 그의 아들 홍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신앙의 뿌리가 깊은 곳이다. 포천시는 이성계가 함흥을 왕래할 때 얹혀진 여러 가지 일화가 남아있을 정도로 조선조의 발상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였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과 교통의 여건으로 인하여 박해시대에 포천시 일대는 일찍부터 옹기촌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주문모 신부가 순교한 신유박해(1801년)때 포천에서 생활하던 홍교만 프란치스코 사베리오와 홍인 레오도 순교하였다. 권철신 암브로시오의 외가 아저씨인 홍교만은 권씨 일족의 감화로 입교하였으며 그의 딸은 정약전의 며느리였다. 순교자 홍교만 이외에도 포천 지역에는 여덟 분의 순교자가 더 있다. 포천 지역의 복음의 씨앗은 이미 홍교만 프란치스코 사베리오와 홍인 레오의 순교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와 거의 같이 시작하였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p> <p>1900년대 초에 이르러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선단리 해룡마을에 포천 지방 최초의 공소가 세워졌고 1921년경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전교 활동을 하고 있던 손성재 신부에 의해 사목되다가 1930년 개성 본당, 1931년부터 1935년까지 행주 본당, 1935년부터 덕정리 본당의 관할 지역에 속하였다. 한국전쟁 후 포천 성당은 서울교구 소속으로 의정부 본당의 관할 공소였으나 1955년 이한림 장군에 의해 현재의 포천성당 자리에 성당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그해 11월에 60평의 석조건물인 성당을 완성하였다. 성당을 건축한 이후 의정부 본당 관할 아래에 있던 많은 공소를 군종신부가 겸임하다가 1956년 2월 21일 초대 본당 신부로 김진하 신부가 부임하면서 포천 성당이 설립되었다.</p> <p>포천본당이 포천시 신읍동에 자리잡게 된 배경은 1955년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며 6군단 군단장이었던 이한림 가브리엘 장군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부터이다.</p>

1955년 7월부터 11월까지 126 공병대대의 도움으로 1천여 평의 대지위에 60평의 석조 건물인 성당과 사제관 20평을 건축하고 성당 안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우수뼈를 모셨고 그 해 12월 10일에 교황 사절인 토마스 쿤란 주교를 모시고 준공식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덕정리 본당을 거쳐 의정부 본당 관할 아래 있던 관내의 많은 공소를 하나로 묶어 포천 본당이 탄생된 것이다.

설립 당시 관할 구역은 포천군, 군내면, 내촌면, 가산면, 소흘면, 신북면, 창수면, 영중면, 일동면, 이동면, 영북면, 관인면, 화현면 등으로 1956년 2월 당시 신자 수는 297명이었다. 서울대교구 소속이던 포천 본당이 춘천교구로 1969년 11월 19일로 편입하게 되었다.

1969년 11월 포천본당이 춘천교구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교구 이승훈 베드로 신부의 후임으로 조선희 필립보 신부가 부임하였는데 부임 직후 성당과 부대시설을 보완하고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녀원을 완공하면서 수녀들을 초청하여 의료사업을 계획하고 1972년 평화의 모친의원을 착공하였다. 평화의 모친의원을 건립하여 13년간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을 통해 희생과 봉사를 나누며 포천지역 복음화에도 큰 역할을 하였으나 1986년 3월 31일 폐원하였다.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신부들에 의해 사목활동이 이루어졌던 포천성당은 1988년 3월에야 한국인 사제가 부임하게 되었고 그 후 춘천교구의 서부지그 중심본당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1990년 7월 11일 한 취객의 방화로 인하여 성당이 완전 전소되었으나 전소된 상태로도 그 역사성을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성당의 전소 이후 성당 재건과 지역 사회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여 1992년 12월 10일 새 성당을 봉헌하였다. 2014년에는 포천 지역 출신인 홍교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와 그 아들은 홍인 레오가 교종 프란치스코에 의해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로 시복되어 현재 순교자 현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춘천교구에서는 최초로 순교성지 선포식이 있었다.

## 5.김화 성당

순례도장 위치	성당 문 열고 바로 왼편
성해(聖骸) 위치	제대 위(안 보임)
성전 개폐 시간	항시 개방
미사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일(월) 06:00</li> <li>- 평일(화, 금) 19:30</li> <li>- 평일(수, 목) 10:00</li> <li>- 토요일 저녁 주일 18:00</li> <li>- 주일 07:00(마현공소) / 10:30(교중) / 19:30</li> </ul>
주소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1로 106
사무실 연락처	033)458-2179
약사	<p>김화 성당은 1959년 9월 1일 철원본당에서 분가하여 본당으로 승격, 설립되었으며 주보는 '성녀 릿따'이다. 김화 성당은 춘천교구 서부지구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성당으로 1955년 4월부터 3가구가 모여 공소예절을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1956년에는 초가집을 매입하여 죽림동 본당 공소로 편입되었고 1957년 6월 4일 철원성당이 죽림동본당에서 분가되어 본당으로 승격되면서 김화 공소는 철원본당 관할로 이관되었다가 2년 후에 본당으로 승격하게 되었다. 1959년 3월에 성당과 사제관 건축을 시작하여 완공하고 전임 선교사를 두어 본당 신부의 사목을 돕게 하였으며 구호사업도 전개하였다. 1980년대에는 평신도의 사도직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가톨릭 농민회가 조직되어 농민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대변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신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도 하였다.</p> <p>한국 천주교회 200주년과 103위 시성식이 있었던 1984년은 김화성당 설립 25주년이 되는 해였는데 본당의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새 성당을 봉헌하고 주보를 '성 김대건 안드레아'로 변경하였다. 1989년 3월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가 진출하여 본당 공동체와 함께 지역 사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1996년과 1999년 두 차례의 큰 수해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본당 신자들 가정이 침수되는 어려움을 겪으며 실의에 빠지기도 하였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는 노력을 통해 더욱 더 굳건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p> <p>2004년에는 본당 설립 45주년을 맞이하여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주관으로 꽃다지 지역 아동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사회 아동들에게 학습지도를 하고 건전한 문화활동을 시키면서 육체와 정신이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있다. 2009년에는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김화성당 50년사'를 발간하였으며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며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p>



## 6.갈말 성당

순례도장 위치	성당 로비
성해(聖骸) 위치	제대 위(안 보임)
성전 개폐 시간	대성당 감실 안
미사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일(월) 06:00</li> <li>- 평일(화, 목) 19:00</li> <li>- 평일(수, 금) 10:00</li> <li>- 토요일 저녁 주일 18:00</li> <li>- 주일 08:30(문혜리공소) / 11:00(교중) / 19:00</li> </ul>
주소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139번길 35
사무실 연락처	033)452-7708
약사	<p>갈말 성당은 1991년 8월 15일 운천 본당 관할 지포리 공소에서 준본당으로 승격되며 ‘지포리본당’이라 명명하였고 1999년 4월 19일 본당으로 승격, 설립 되면서 본당명을 ‘지포리본당’에서 ‘갈말본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주보는 ‘성 조 신철 가를로’이다. 갈말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한 열심한 신자가 철원군 갈말면 지포리 연봉재에 토기공장을 설립하여 그의 가족을 포함한 신자 가정 5가구가 함께 살며 공소가 설립되었고 매년 춘추로 평강본당 신부가 판공성사를 집전하 러 오셨다. 전쟁 후 휴전과 함께 철원, 김화 지역이 수복됨에 따라 그들은 다시 돌아와 토기공장을 열고 공소 회장 집에 모여 말씀의 전례를 바쳤는데 참석인원 은 40~50명 정도였다. 이렇게 신앙의 여명을 열었던 갈말은 1957년 철원성당 관할로 지포리와 문혜리, 용화동과 함께 공소로 설립되어 활발한 신앙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p> <p>철원본당 관할 공소였던 지포리는 1971년 7월에 포천지역이 춘천교구에 이관되 면서 운천본당 관할지역으로 편입되었다. 당시 선교사로 임명된 홍수명은 지포리 공소를 비롯한 각 공소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전교활동을 펼쳐 신자수가 증가하고 신앙생활도 틀이 잡혀가기 시작하였다. 이후 화전민을 이주시키는 정부 의 정책에 따라 용화동 공소 신자수가 급격히 줄어 공소를 폐쇄하고 지포리와 문혜리 공소가 신앙공동체의 중심을 이루었다.</p> <p>1989년 9월 당시 춘천교구장이었던 박 토마스 주교는 지포리 공소를 본당으로 승격시키기로 결정하였고 1990년 9월 사제관 건축을 완공하고 축성미사를 드렸 다. 본당 승격 후에도 공소 건물을 성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새 성전 건립이 절실 하여 성당 건축을 계획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1999년 4월 26일 마침내 새 성 전을 완공하여 교구설정 60주년 기념성당으로 헌당식을 거행하였고 <del>2층 소성당 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유해(발가락뼈)를 모시고 있다.</del> (현재 대성당 감 실 안) 갈말 본당은 소공동체 모임과 레지오의 활성화로 지역 선교와 냉담자 회두에 노력하고 있으며 함께 기도하고 활동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p>

※ 갈말 성당은 한 신앙인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어 성장하였는데, 1963년 10월 당시 철원본당 지포리 공소에 전교회장으로 임명되어 철원, 갈말, 운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홍수명 타대오 전교회장이다. 홍수명 회장은 매주 공소를 방문하여 공소예절을 하고, 전교활동을 하면서 당시 외국인 본당 신부와 신자들과의 관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채워주었다. 1985년 12월 공식적으로 전교회장을 사임하기까지 20여년동안 전교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홍수명 회장은, 사임 이후에도 지포리 공소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청소 및 공소 관리 등 굵은 일을 도맡아하였다. 1991년 1월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공소회장을 사임하였고, 그해 8월 15일 지포리 공소는 갈말 본당으로 승격되었다. 갈말 본당에서는 1995년 9월 본당 소식지 ‘다두보’를 창간하여 홍수명 회장의 업적을 기리고자 하였고, 새로운 성당 신축후에는 현관에 홍수명 회장의 흉상을 제작, 설치하였다.

## 7.임당동 성당

순례도장 위치	사무실 입구
성해(聖骸) 위치	성전 안 감실 하단
성전 개폐 시간	09:00 ~ 저녁미사가 있는 날은 미사 후, 없는 날은 18:00
미사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일(월) 06:00</li> <li>- 평일(화, 목) 19:30(하절기) / 19:00(동절기)</li> <li>- 평일(수, 금, 토) 10:00</li> <li>- 토요일 저녁 주일 18:00(어린이, 중·고등부)</li> <li>- 주일 07:00 / 10:30 / 19:30(하절기) / 19:00(동절기)</li> </ul>
주소	강원도 강릉시 임영로 148
사무실 연락처	033)642-0700
약사	<p>임당동 성당은 1921년 7월 원산본당 소속이었던 영동지방에 그 해 서품된 이철연 방지거 신부가 강릉군 구정면 금광리(현 금광리 공소 위치, 당시 명칭은 영동 교회)에 머물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경성교구 부주교이던 파리의방전 교회 소속 유(Davred) 주교의 지시로 사목과 전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1923년 6월, 지금은 주문진인 강릉군 신리면 교항리 133번지에 10칸 상당의 가옥을 신축하여 성당을 이전하며 11월에 본당으로 발족했으나 1934년 현재의 임당동 성당 소재지로 다시 본당을 이전하면서 강릉본당으로 불렸다. 1974년에는 임당동 본당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주보는 ‘성 골롬바노’이다.</p> <p>임당동 성당이 자리잡고 있는 강릉은 천혜의 수려한 자연과 유서깊고 전통을 자랑하는 영동지역의 중심 고도로서 고구려 시대에는 하시랑, 하슬라(何瑟羅)라고도 불리웠으며 이는 강릉의 옛 이름이다. 강릉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기록된 바대로 ‘강릉인들의 솔직성, 열성, 물욕이 없고 예의 바름’이 천주교 신앙과 일치하여 일찍이 신앙의 싹이 정착되었던 것이다.</p> <p>교황청은 1938년 강원도 지역 사목을 성 골롬반 선교회에 위임하였고, 1939년 4월 25일 서울교구에서 분리되어 감목구가 되었으며, 1940년 구 토마스 신부가 춘천 감목대리가 됨에 따라 김학용 신부 재임시 임당동 본당은 춘천교구로 편입되었다.</p> <p>전쟁 중인 1951년 현재의 성당 소재지인 강릉시 임영로 148에 본당 부지를 매입하여 1955년에 본당 건물을 신축, 준공했고, 같은 해 11월 23일 구 토마스 주교의 집전으로 축성되어 ‘성 골롬바노’ 성전 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p> <p>임당동 성당은 설립 이후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1946년에는 불우 청소년을 위한 야간 중등학교 과정인 성심공민학교를 설립하고 그 후 성심중학교로 개칭하여 10년간 지속되었다. 우리 모두가 혈벗고 굶</p>

	<p>주리던 시기에 무보수로 봉사한 교사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420 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나 당국의 인가를 받지 못하여 1957년 2월 자진 폐교하였다. 또한 1967년 3월에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가 ‘소화유치원’을 개원하여 취약한 아이들의 전인교육을 위해 봉사하면서 교육열은 있으나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던 지역 사람들에게 사랑의 불빛이 되었다. 소화 유치원은 현재까지 교우 자녀들뿐만 아니라 가톨릭 신앙을 모르는 비신자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싹을 심어 주는 역할을 하며 신뢰받는 가톨릭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1964년에는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녀들에 의해 갈바리 의원이 설립되어 이 지역의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 의료 활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p> <p>이후에도 본당이 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목을 펼치며 본당 설립 70주년을 맞은 1991년에는 성전 보수를 계획, 추진하여 기대와 설레임 속에 왜관 성 베네딕토 수도원 수사들이 제작한 스테인드그라스가 성전 유리창에 설치되고, 이콘이 장식된 제대와 청동 십자가 고상과 새로 조각된 14처 등의 성물로 성당 분위기를 일신시키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터전을 완성하여 1992년 11월 2일 주님께 봉헌드리며 감사미사를 거행하였다. 2010년 독특한 건물양식과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 457호로 지정되었다.</p> <p>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지방의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영동지방으로 넘어와서 토기업으로 생계를 이으며 신자촌을 형성해 시초를 이루었던 임당동 성당은, 2008년 6월 29일부터 2009년 6월 29일까지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선포하신 성바오로 사도탄생 특별희년 1년동안 신자들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지역교회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21년이면 본당 설정 100주년을 맞이하는 임당동 성당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며 100주년을 위한 준비를 정성스럽게 해나가고 있다.</p>
--	--

## 8.노암동 성당

순례도장 위치	본당 입구
성해(聖骸) 위치	성전 제대 감실 옆(유해 보관함)
성전 개폐 시간	월, 화 오전 제외 항시 개방
미사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일(월) 06:30</li> <li>- 평일(화, 목) 19:30</li> <li>- 평일(수, 금, 토) 10:00</li> <li>- 토요일 저녁 주일 18:00(어린이, 중고등부)</li> <li>- 주일 06:30 / 10:30(교중) / 19:00</li> </ul>
주소	강원도 강릉시 노암길 42번길 10-5
사무실 연락처	033)643-8460
약사	<p>노암동 성당은 1987년 10월 23일(교구 교령에 의함) 임당동과 옥천동에서 분리, 설립되었으며 주보는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이다. 강릉시내에 신자가 증가하면서 본당 설립이 거론된 가운데 남대천을 중심으로 남쪽에 새로운 성당 건립을 모색하면서 박 토마스 주교는 강릉시 노암길 42번길 10-5에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에도 직접 관여하며 1986년 9월 26일 성당 기초 공사를 시작하고 1987년 9월 5일에 완공하여 헌당식을 거행하였는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기념”성당으로 설립되었다.</p> <p>당시 관할구역은 강릉시 노암동, 내곡동 일부, 입암동 일부, 월호평동, 신석동, 명주군 구정면 어단리·금광리, 강동면 일부였으나, 입암 성당 분가 이후 강릉교사 거리를 기점으로 울곡로 서쪽과 강변로 남쪽을 관할하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강남동과 내곡동, 구정면과 강동면 일부를 관할하기에 강릉시에서 가장 넓은 지역과 인구수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 본당에 나오는 신자들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노암동 본당은 금광리 공소를 관할하고 있는데 금광리 공소는 영동지방 강릉 지역에 최초로 복음이 전파된 전교 거점으로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공소이다. 열악한 건물과 주변환경에도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공소를 방문하는 순례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공소에서 월 1회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p> <p>노암동 본당은 설립과 함께 한국인 사제들이 부임하여 사목하였는데 부임 초기에 제 단체를 신설하고 본당의 기틀을 다지는데 주력하며 단체 활성화와 ‘신자배가 운동’을 펼쳤다. 노암동 성당은 본당을 위해 1987년부터 2000년까지 단오장 식당 운영과 생필품 판매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왔으며, 1997년에는 본당 설립 10주년 기념 미사를 봉헌하였고 2000년 대희년 폐막미사와 함께 본당 13년사를 발간하였다. 2001년에는 본당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현재까지도 운영 중인데 본당의 모든 소식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타지역에서 영동지역을 여행하는 교우들에게 홈페이지에 여행 정보 등을 제공하여 편리함을 주고 있다. 노암동 성당은 본당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p>

## 9.주문진 성당

순례도장 위치	사제관 입구
성해(聖骸) 위치	성전 제대 감실 옆(유해 보관함)
성전 개폐 시간	평일 09:00 ~ 20:00(저녁미사 O) / 17:00(저녁미사 X) / 토요일 19시까지 주일 17시까지
미사 시간	- 평일(월) 06:00 - 평일(화, 목) 19:00(동절기) / 19:30(하절기 5월 ~ 9월) - 평일(수, 금) 10:00 - 토요일 저녁 주일 18:00(청소년미사) - 주일 07:00 / 10:30(교중)
주소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을 교항안길 51
사무실 연락처	033)662-9115
약사	<p>주문진 본당은 1923년 11월 23일 금광리에서 사목하던 이철연 신부가 주문진(현 강릉시 주문진을 교항원길 51)으로 이전한 것이 그 시초가 되었으며 주보는 '루르드의 성모'이다. 본당 설립 전의 주문진은 경상도 경주에서 박해를 겪은 두 형제가 양양군 현남현 견불리에 정착하기까지 이 지방은 신앙의 불모지였다. 그들은 토기업에 종사하며 가족들을 이끌고 주문진으로 이사하여 정착하면서 또 다른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고 원산본당에 소속되어 봄, 가을로 판공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p> <p>강릉 아래의 금광리(현 강릉시 구정면 금평로 514)신자들은 1921년의 가을 판공 때 양양본당 주임신부에게 보좌신부인 이철연 신부를 금광리에 파견해 주도록 요청하였는데 실제로 강릉 이남의 공소들은 신자수도 많았고 공소 강당과 신부가 머무를 수 있는 사제관도 마련해 놓아 사제 파견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신부를 파견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이철연 신부는 1921년 12월 2일 금광리로 내려가 '금광리본당(주문진본당의 전신)'을 설립하였다.</p> <p>이철연 신부는 금광리에서 사목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곳 신자들이 열심이긴 하나 거주하기에 적당하지 않고 발전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장차 양양이나 주문진, 강릉지역으로 본당 중심지를 옮기려고 생각하고 양양본당의 최문식 신부와 상의하여 주문진으로 이전을 결정하고 먼저 부지를 매입한 뒤 성당과 사제관을 짓기로 하였다. 1923년 초 작은 야산과 그 아래에 너와집 한 채가 있는 땅을 매입하여 6월에 비가 새는 지붕을 기와로 개량하고 집을 증축한 뒤 1923년 11월 23일 금광리를 떠나 주문진(현 강릉시 주문진을 교항원길 51)으로 이전하였으며 이때부터 '주문진 본당'이라 명명하였다.</p> <p>본당을 주문진으로 옮긴 후에 전교는 활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 개항된 주문진보다 강릉 지역이 더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설상가상으로 1929년 1월에 주문진 성당이 화재로 전소되는 시련을 겪게 되었다. 화재 후 김인상 신부는 본당을 금광리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강릉으로 이전하였다. 전소된 성당과 본당신부의 부재로 주문진 본당은 22년간 공소가 되었다.</p>

1951년 11월, 골롬반 외방 선교회 소속 신부가 주문진 공소로 부임하면서 서서히 교세를 회복하여 신자수가 300여명에 이르러 1955년 1월 새로운 성전에서 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하였다. 1956년에는 성모상을 건립하여 안치하고, ~~체익방에는 성 김대건 안드레이 신부의 유해 일부(모발, 뼈)를 모셔게 되었다.~~ (현재 제대 감실) 1958년에는 행정 공소(강릉시 연곡면 행정2길 14, 벽돌을 교우들이 구워 만든 공소로 교구의 사적지)와 인구 공소, 1959년에는 삼산 공소를 신축하였으며 꾸리아의 발족 및 여러 단체들이 신설되고 활성화되면서 본당으로서의 기틀을 다져나갔다.

1967년 9월 3일 교구와 골롬반 외방선교회에서 관할하던 주문진 성당은 작은 형제 수도회로 사목이 위임되었다. 작은 형제 수도회는 30년간 주문진 본당에서 사목을 하면서, 신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그 외에도 본당 주보를 창간하고 학생회와 청년회 등 여러 단체를 신설하고 영동지구 청년회원들의 모임인 ‘형제들의 모임’을 조직하여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1985년에는 아씨시의 전교 수녀회가 진출하도록 하였다.

1997년 9월 3일 작은 형제 수도회가 주문진 본당에서 철수하고 춘천교구에 사목권을 위임하면서 주문진 성당은 교구 소속 신부가 부임하게 되었다. 수도회에 의해서 30년간 사목되어지던 본당에 부임한 교구 사제는 본당의 쇄신을 위해 노력하였고 1998년 11월 ‘주문진 본당 75년사’를 발간하였으며 성서 백주간 및 성서쓰기 운동을 전개하며 본당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2002년 8월 태풍 루사의 피해로 성당 곳곳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사제·수도자·평신도 모두가 힘을 합해 새롭게 중창을 하여 전국의 많은 성당 중에서도 손꼽힐 만한 아름다운 성전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교구에서는 주문진 관할터(영동지구와 영북지구의 가운데 격이라 할 수 있는 이곳)에 영동·영북 지구를 사목적 배려하기 위하여 교구 제2청사를 지어 교우들의 교육/피정/연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 10.솔을 성당

<b>순례도장 위치</b>	성전 입구 주보대 위
<b>성해(聖骸) 위치</b>	성전 제대 앞
<b>성전 개폐 시간</b>	월 X / 화 16:00-20:30 / 수 09:00-11:30 / 목, 금, 토 09:00-11:30, 14:00-20:30 / 주일 항시 개방
<b>미사 시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일(월) 06:00</li> <li>- 평일(화) 19:30</li> <li>- 평일(수) 6:00 / 10:00</li> <li>- 평일(목, 금) 10:00 / 19:30</li> <li>- 평일(토) 10:00</li> <li>- 토요일 저녁 주일 16:00(어린이) / 19:30(중고등부)</li> <li>- 주일 07:00 / 09:00 / 11:00(교중) / 19:30(청년)</li> </ul>
<b>주소</b>	강원도 강릉시 교동광장로 171-23
<b>사무실 연락처</b>	033)647-4966
<b>약사</b>	<p>솔을 성당은 2004년 2월 12일 임당동에서 분리, 본당으로 신설되었으며 주보는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이다. 강릉시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교동 일대에 택지 개발을 시작하면서 고밀도 주거지역이 형성되었고 교구는 성당 신축의 필요성에 따라 강릉시 교동광장로 171-23의 부지를 매입하였고 새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사용할 임시 성전을 강릉시 교1동 1868-6번지 성원빌딩 5층에 마련하여 틀을 갖추어 첫 미사를 봉헌하였다.</p> <p>이렇게 시작한 솔을 공동체에 가장 시급한 것은 임당동, 옥천동, 초당 성당에서 분리되어 한 공동체가 된 신자들을 ‘솔울’(솔울이라는 명칭은 예로부터 이 지역에 내려오는 지명으로 ‘솔이 우거진 고을’이라는 뜻)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도록 화합으로 이끄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소공동체를 중심으로 복음을 나누고, 실천하기를 권장하고 사목 협의회와 각종 단체들을 구성하여 본당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각 가정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바자회와 단오제 등을 통하여 성전 건립 기금을 마련하여 2008년 3월 20일에는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하여 주님께 봉헌하는 헌당식을 거행하였다. 2014년 2월 12일 본당 설립 10주년을 지낸 솔을 성당은 역사는 짧지만 여러 성당의 분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서로 이해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역의 복음화에 앞장서고자 노력하고 있다.</p>



## 11.목호 성당

순례도장 위치	사무실 앞
성해(聖骸) 위치	성전 제대 왼편
성전 개폐 시간	성전 옆 문 항시 개방
미사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일(월) 06:30</li> <li>- 평일(화, 목) 19:00</li> <li>- 평일(수, 금, 토) 10:00(토요일은 첫주에만)</li> <li>- 토요일 저녁 주일 16:00(어린이) / 19:00(중고등부)</li> <li>- 주일 06:30 / 10:30(교중) / 19:00</li> </ul>
주소	강원도 동해시 발한로 161
사무실 연락처	033)647-4966
약사	<p>목호 성당은 1948년 6월 임당동 본당 관할 공소에서 본당으로 승격되었으나 6.25 당시 공산군에 의해 성당이 점거되고 주임 신부인 라 파트리치오(Patrick Reilly) 사제가 순교하는 시련을 겪었다. 1954년부터 삼척 성내동 본당(1965년 교구분리에 따라 현재 원주교구 성당)관할 공소였다가 1957년 6월 현재의 성당 건물을 준공하면서 다시 본당으로 승격되었고 주보는 ‘바다의 별’이다.</p> <p>목호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1931년으로 1940년에는 임당동 본당의 관할 공소로 설정되어 일본식 가옥을 매입하여 성당으로 사용하였으며 1945년 해방 후에는 목호 해군 사령부의 군중 신부가 부임하여 사목을 하였다. 1948년에 본당으로 승격한 목호성당은 이듬해 라 파트리치오 신부가 부임했는데 한국 전쟁 중 공산군이 성당을 점령하자 당시 전교회장의 집에 잠시 피신해 있다가 체포되어 강릉으로 이송도중 밤재굴에서 순교하였다. 1950년 8월 이후 본당은 거의 폐쇄되었으며, 1954년에는 삼척 성내동 본당 목호공소가 되었다.</p> <p>1957년 본당이 다시 설립되면서 성당 내에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 일부를 모시게 되었고 신자들의 신앙심 고취를 위한 피정 및 재교육에 몰두하였으며 1962년 7월에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가 목호성당에 진출하였다. 목호성당은 지역사회의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1968년 11월 남호실업중고등학교를 인수하여 남호고등공민학교로 개명하고 교육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15년 후인 1982년 2월에 폐교하였다. 1962년에 목호성당에 진출했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는 1977년에 철수하고, 1979년에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 진출하여 현재까지 사목을 돕고 있다.</p> <p>목호 성당 설립 이래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 사제들이 부임해 사목을 해오다가 1981년에야 비로소 한국인 사제가 부임하여 본당 내 소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각종 단체도 신설하는 등 활동을 하며 활기가 넘치는 본당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2년 1월에는 원주교구 소속의 천곡동 본당이 아파트 밀집 지역에 신설되면서 한 지역에 2개 교구의 본당이 존재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관할 구역내 신자들의 교적 정리가 이루어졌으며 목호성당은 교세의 감세추세로</p>

	<p>돌아서게 되었다.</p> <p>2002년 태풍 루사로 지붕이 파손되어 성당 안까지 물이 들어와 지붕 철거 공사를 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2003년에는 성당 안팎 모든 곳을 공사하였다. 2008년에는 본당 설립 60주년을 기념하여 기도문을 만들어 매 미사마다 기도문을 묵상하였고 이듬해 본당 설립 60년사를 발간하였다. 목호성당은 순교자를 모시고 있는 공동체로서 본당 신자들이 순교자 라 파트리치오 신부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순교자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도 끊임없이 드리고 있다. 1974년 라 파트리치오 신부 순교비를 처음 건립하였다가 2003년 성당 앞마당 성모상이 있던 자리에 순교비를 새로 건립하였다. 또한 라 파트리치오 신부의 거룩한 순교 신앙을 기리기 위하여, ‘파트리치오’ 상을 1994년 8월 29일 제정하여 본당 신자 가운데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교우에게 수여하기도 하였다.</p>
--	--

## 12.동명동 성당

순례도장 위치	사무실 건물 ‘만남의 방’ 안 테이블
성해(聖骸) 위치	제대 중앙
성전 개폐 시간	미사 1시간 전에만 개방 *방문 전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개방해드립니다.
미사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일(월) 06:30</li> <li>- 평일(수, 금) 10:00</li> <li>- 평일(화, 목) 19:00</li> <li>- 토요일 저녁 주일 16:00(어린이) /19:00</li> <li>- 주일 07:00 / 10:30(교중) / 19:00</li> </ul>
주소	강원도 속초시 영랑로7길 10-5
사무실 연락처	033)632-3088
약사	<p>동명동 성당은 1952년 10월 1일 양양 본당으로부터 분리, 설립되었으며 주보는 ‘파티마의 성모’이다. 설립 초기 성당명은 속초 성당이었으나 1966년 12월 30일 교동성당을 분리하면서 동명동 성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51년 군정이 실시되면서 속초 지역은 자유를 찾아 월남한 사람들이 증가하였고 이들 중에는 신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춘천교구장이던 구 토마스 신부가 죽음의 행진으로 끌려간 후 교구장 직무대리였던 오 후베르트 신부는 피난민이 증가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속초의 모습을 보면서 사제 상주의 필요성을 느껴 1951년 11월 속초에 사제를 파견하였다. 하지만 사제가 상주할 공간이 없어 강릉본당 관할 공소인 주문진 공소 인근에 기와집을 구입하고 수리하여 거처를 정하고 속초, 고성, 양양 지역을 관리하게 하였고 이때 주문진 공소는 다시 본당으로 승격되었다.</p> <p>전쟁이 지속되는 중에도 속초로 월남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자 교구장 직무대리는 속초에 성당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현 동명동 성당 부지(강원도 속초시 영랑로7길 10-5)를 매입하여 주문진 공소 인근에서 거주하던 원 파트리치오 신부를 속초본당의 주임으로 부임시켜 속초시 전 지역과 고성군 전지역, 그리고 양양군 일부지역인 토성면과 죽왕면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1952년 10월 1일 본당 설립 직후부터 본당 건축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성당 부지 평토 작업등의 기초 작업을 마친 10월 20일부터 성당 건립을 시작하여 1953년 8월 15일에 현재의 성당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하였다. 본당이 설립된 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목적 과제는 한국전쟁 후에 양산된 고아와 가난한 이들, 그리고 실향민들에 대한 배려였다.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온 많은 피난민들과 참혹한 전란의 상처로 고통받는 난민들은 돕고 보살피는 일에 온 힘을 다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고, 전쟁 고아들은 본당에서 직접 돌보기도 하였다.</p> <p>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 사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사목은 1979년 본당설립 27년 만에 한국인 사제가 처음으로 부임하였고 한국인 사제들이 부임하면서 본당의 자립을 위해 노력하였고 교회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신심단체들을 조직하였다. 또한 본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목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지역사회와</p>

	<p>함께 하는 사회복지 사업은 1991년 파티마 양로원 설립으로 이어져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였는데 파티마 양로원은 2003년 3월 20일자로 폐쇄하고 그 운영권은 까리따스 수도권 소속의 ‘마태오 양로원’으로 이관하였다.</p> <p>본당 설립 35주년을 맞이하여 1988년에는 파티마 장학사업을 시작하여 1998년에 ‘천주교 춘천교구 영북지역 장학회’를 발족하기도 하였다. 2002년 10월 1일에는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목 표어 아래 ‘내가 곧 교회’라는 것을 신자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3년 10월 30일에는 본당 50년사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동명동 성당은 본당의 각 구성원들에게 선교 의식을 고취시키고, 본당 총회를 통해 교우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통합하여 본당의 사목 방향을 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p>
--	---

### 13.거진 성당

<b>순례도장 위치</b>	사무실 앞 우체통 안
<b>성해(聖骸) 위치</b>	제의방
<b>성전 개폐 시간</b>	미사 때만 개방
<b>미사 시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일(월) 06:30</li> <li>- 평일(화, 목) 19:30</li> <li>- 평일(수, 금, 토) 10:00(토요일은 첫주에만)</li> <li>- 토요일 저녁 주일 19:30</li> <li>- 주일 10:30</li> </ul>
<b>주소</b>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탄진로129번길 15
<b>사무실 연락처</b>	033)682-5484
<b>약사</b>	<p>거진 성당은 1976년 8월 16일(교구 교령에 의함) 간성 본당에서 분리, 설립 되었고 주보는 ‘승리의 모후’이다. 1866년 병인박해를 피해 피신하던 신자들이 현 거진읍 산북리 노인산 기슭의 산두골에 정착하여 산두공소를 형성해 영동지역 천주교 복음화의 모체가 되었다. 산두 공소는 당시 신자수가 70~190명에 이르렀는데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공소가 파손되기도 하였고 수복 후에는 민통선 안에 위치하게 되어 안타깝게도 폐쇄되었다.</p> <p>1976년 8월 16일 간성 성당으로부터 분리된 거진 성당은 고성군 거진읍과 현 내면을 관할하게 되었으며 초대 신부로 부임한 오남성 후베르토 신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으로 성당 부지(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탄진로129번길 15)를 구입하여 현재의 성전을 건립하게 되었다. 오 후베르토 신부는 1976년에 거진 성당에 부임하여 1989년까지 13년간 사목하였다.</p> <p>1991년에 한국인 사제가 처음으로 부임해 오면서 거진 성당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목하였으며 1992년 2월에는 ‘미리내 성모성심수녀회’가 본당에 진출해 사목을 돕게 하였다. 또한 사제관과 화장실, 성모회 주방 등을 건립하여 성당의 모든 행사가 원활하도록 하였고 본당이 자립의 기틀을 마련한 이후에는 대진 공소의 신축과 더불어 신자들의 신앙심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으며 2001년 8월 15일에는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행사를 치루면서 초대 주임 오남성 후베르토 신부의 공덕비를 세워 그 공덕을 기리는 한편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과 성령쇄신 운동도 해나가고 있다.</p> <p>1992년 2월에 진출해 본당의 사목을 돕던 ‘미리내 성모성심수녀회’는 2011년 2월 28일 자진 철수하였으며, 교육관 및 수련시설로 쓸 수 있는 건물을 2007년도에 지어 도시본당에서 청소년들과 교우들이 휴가철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하고 있다.</p>

## 14. 양양 성당

순례도장 위치	성당 출입구 왼편
성해(聖骸) 위치	제대 성모상 쪽
성전 개폐 시간	항시 개방
미사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일(월) 06:30</li> <li>- 평일(화, 목) 19:30</li> <li>- 평일(수, 금, 토) 10:00(토요일은 첫주에만)</li> <li>- 토요일 저녁 주일 16:00(어린이) / 19:30 / 21:00(솔비치)</li> <li>- 주일 6:30 / 10:30(교중) / 19:30</li> </ul>
주소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7
사무실 연락처	033)671-8911
약사	<p>양양성당은 1921년 4월 영동지역 최초로 설립된 본당인데 이 지역은 1887년 원산 성당, 1889년 안변성당, 1891년 내평 성당에 진출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에 의해서 사목이 이루어졌고 1920년 원산교구가 설립되면서 1921년 4월 중국 연길현 팔도구 성당의 최문식 신부가 양양의 상도문리에 천주당을 세운 것이 시초가 되어 양양 본당이 설립되었으며 당시 주보는 '예수 성심'이었다. 최문식 신부는 도문에 경당을 건립했던 같은 해 경당을 철거하고 1921년 12월 서문리에 50평 건물을 매입하여 성당을 옮겼으며 1937년 8월 현재의 위치(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7)에 성당부지를 구입하여 성당을 신축하기 시작하고 이광재(디모테오)신부가 3대 주임신부로 부임한 후 1940년 2월에 65평의 건물로 성당이 완공되어 헌당식을 하였다.</p> <p>그 후 본당의 기틀이 점차 잡히고 활성화되었지만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성직자들과 신자들은 수없이 고통을 당하였고 2차 대전 종식 후에도 양양본당은 38선 10마일 이북에 위치해 소련군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 광재 신부는 성당 밑의 사택에서 생활하며 사목활동을 벌였고 소련군의 철수로 성당을 되찾은 후 38이북과 이남의 광범위한 지역을 다니며 활동하였다. 이광재 신부는 비밀리에 다락방에 성체를 모셔 두고 공산당의 종교 탄압을 겪으면서 많은 성직자와 수도자들을 38선 이남으로 넘어가도록 도와주었고 평강과 이천의 지역에 사목하던 제들이 체포되어자 1950년 부활대축일이 지나 북측 신자들의 방문 요청을 받고 갔다가 공산군에 의해 체포되어 수감되었다. 그해 유엔군에 의해 원산이 탈환될때 같이 수감되었던 김봉식 신부와 함께 동굴에서 사살되어 순교하셨다. 현재 양양성당에서는 이광재 신부의 시복 시성을 위해 꾸준히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이광재 신부님 순교를 기리며 38선 디모테오 길 도보순례를 진행하고 있다.</p> <p>양양성당은 한국전쟁으로 성당이 전소되어 미8군의 지원으로 부서진 성당을 재건하고 1954년 11월에 현 성당을 지어 봉헌하였는데 이때 주보를 '아기 예수 의 성녀 데레사'로 변경하였다. 이광재 신부 순교 이후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 사제들에 의해 사목이 이루어지다가 1984년에 한국인 사제가 처음 부임한 이</p>

	<p>래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2021년이면 본당 설립 100주년이 되는 양양 본당은 “착한 목자”의 삶을 살다 가신 이광재 신부의 순교 정신을 믿음의 기초로 삼아 지역사회와 함께 하며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모든 신자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증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p>
--	---